



풀에서

우유까지

— 국토개발연구원 — 元 鍾 益

지난 가을의 일이다.

잘 개인 가을날씨에 국민학교 5학년 정도의 사내아이와 2학년 정도의 딸아이를 데린 30대의 젊은 부부가 교외에 있는 목장을 찾아 왔다.

목장에는 1ha가량의 초지가 있고 그 가장자리에 외양간과 소 배어두는 자리가 나무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으며 초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다. 때마침 풀밭에는 5마리의 젖소가 풀을 뜯고 있으며 운동장에는 세마리의 젖소가 한가롭게 새김질을 하면서 서 있기도 하고 누어 있기도 했다.

「엄마 저것 봐, 소야 소.»

「그래 저것이 우유를 짜는 젖소란다.»

「그럼 우리가 먹는 우유가 저 소에서 짜는거야.»

「그렇지. 저 젖통을 봐라. 저리로 우유가 나오고 그것을 짜서 매일 집까지 배달해 준단다.»

「야 그 젖통 참 크다 많이 들어 있나봐.»

「엄마 젖소는 무엇 먹고 살아.»

「풀 먹고 살지」

「풀을 먹으면 우유가 나와?」

「그래 다른 것도 먹지만 풀을 제일 많이 먹지」

이들 가족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어린 딸 아이의 의문은 한량 없고 그 이상의 질문이 나오

면 엄마가 막힐 지경이다.

이들은 다시 소가 쉬고 있는 운동장의 목책가에서 소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사내 아이가 아빠에게 질문했다.

「아빠! 저 소는 젖통이 작은 것을 보니까 아마 숫놈인가봐요.»

「아니 저 소는 지금 임신 중이니까 송아지를 낳으면 다시 젖통이 커지고 우유를 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암소는 언제나 우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당연한 일이지. 소가 사람 먹이려고 젖을 쉼새 없이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 새끼를 키르기 위해 젖이 나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이 짜서 먹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우유를 많이 얻기 위해 여러가지로 연구하고 개량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젖소가 생기게 된 거란다.»

「아빠 그러면 송아지는 한번에 몇마리나 낳지?」

꼬마의 질문이다.

「한번에 한마리 밖에 낳지 않아. 간혹 쌍둥이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지」

「여보 그러면 젖소는 몇해 만에 한번씩 새끼

를 낳게 되어요.]

이번에는 엄마의 질문이다.

「대체로 젖소가 송아지를 낳고 젖을 짜게 되면 약 1년 가량 계속되지 그러다가 차츰 젖나는 양이 줄면 다시 임신하게 되고 약 10개월만에 송아지가 나니까 이래저래 1년은 걸리게 되니까 젖을 짜는 시기와 젖이 나지 않는 시기가 1년씩 교대로 되는 계산이야.」

「그러면 일생에 몇번이나 임신하지요.」

「소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일정하지 않지만 많은 경우는 7~8회 그러니까 10여년을 넘게 새끼 낳고 젖짜고를 되풀이하는 우수한 소도 있지만 2~3회 밖에 임신하지 못하고 젖이 나지도 않고 임신도 되지 않아 그대로 고기로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은 우유가 젖소로부터 짜내는 소의 젖인줄은 알지만 한번 짜기 시작하면 몇해고 그냥 계속해서 우유를 생산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회지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우유를 즐겨 먹을 줄만 알지 그 젖소가 어떻게 해서 우유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연 무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아빠! 소는 아무 풀이나 다 먹어?」

어린 딸 아이의 호기심은 끝이 없다.

「그렇지 않아. 먹으면 독이 되는 풀도 있고 또 영양가가 높아 아주 좋은 풀도 있지. 저기를 보아라. 젖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저곳은 풀이 깨끗이 자라고 있지 저것을 초지(풀밭)라고 하는 거야. 저곳에는 소가 먹으면 젖이 많이 나는 영양가 있는 풀을 가꾸어 마음대로 먹도록 만든 곳이지」

「어머 풀도 가꾸는 거예요. 아무 풀이나 마구 먹게 두는 것이 아니지요」

젊은 엄마도 소는 아무 풀이나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

「그럴 수는 없지.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는 소

가 즐겨 먹는 풀이 있기는 하지만 영양적으로 볼품 없는 풀이 많아서 역시 젖소가 최고로 젖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영양가가 높은 풀을 골라 먹여야 하고 그렇게 하자니 자연 초지를 따로 조성하여 거기에 풀씨를 뿌려 가꿀 수 밖에 없지.」

「그렇군요, 역시 젖소를 많이 기르자면 초지부터 많이 만들어야겠네요」

「아무렴. 그래서 자꾸만 우유소비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초지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빠 그러면 젖소는 풀에서 우유를 만드는 공장과 같은 것이네요.」

사내 아이가 그럴듯한 말을 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젖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그 공장이 제대로 잘 돌아가도록 설비 없이 젖소를 돌보고 잘 전사하여 언제나 성능이 좋게하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무심히 지금까지 마시고 있던 우유도 이제부터는 그런 아저씨들과 또 젖을 만드는 젖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셔야 할 것이다.」

이 단란한 일가족은 천천히 걸어서 소가 무심히 풀을 뜯고 있는 초지가에 이르러 적당한 나무 아래 앉아 쉬게 되었다.

「소는 풀을 먹으니까 풀밭만 있으면 그렇게 비용은 들지 않겠네요.」

젊은 부인의 계산속 빠른 질문에 대해 아빠는 「그렇지도 않지. 첫째 풀만 먹여 가지고는 만족스럽게 우유를搾 수가 없어요 물론 소의 주식은 풀이기 때문에 풀을 가장 많이 먹게 되지만 역시 우유를 많이 얻으려면 보리나 옥수수, 쌀겨 같은 먹이를 주어야지. 그래서 젖소를 기르는 농가에서는 옥수수를 갈아서 겨와 섞어놓은 배합사료를 사다 먹이고 있어요. 이 사료값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우유값이 오르게 되고 그래서 농가에서는 늘 수지가 맞는지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되지.」

「젖소 한마리에서 하루 얼마나 젖을 짜게 되는지 당신 아세요.」

「글쎄 정확한 것은 소에 따라 또 먹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성적이 나쁜 소는 10kg 가량이 고작이고 성적이 좋은 소는 30kg 까지 짜게 되니까 가정에 배달되는 우유병으로는 50병 정도에서 150~160병 정도로 차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농가로서는 되도록 많은 우유를 얻기 위해 자연히 배합 사료를 많이 먹이는 경향이 있지. 그러나 배합사료를 만드는 옥수수나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것이므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우유도 일부 수입하는 것과 같은 꼴이지.」

「그럼 풀을 많이 먹이면 되잖아요.」

「많이 먹는다고 해 봐야 한계가 있지. 대체로 많이 먹는 경우는 체중의 10% 가량. 그러니까 600kg 가량의 큰소라면 60kg 가량 즉 장정짐으로 한짐가량을 하루에 먹게 되지, 따라서 젖소의 수가 많으면 풀의 양도 막대해지는 계산이야.」

「그렇겠네요. 그렇지만 겨울에는 풀이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지요.」

「여름 동안에 풀을 베서 말려 건초를 만들어

두어야하지. 그리고 사이레지라고 하여 풀을 한뼘 정도씩 잘라 쟁여넣어 띄워 가지고 먹이는 것인데 저기 목장 옆에 빨간 뽕죽 지붕을 가진 둥근 탑이 있지. 저 탑이 「사이로」라고 풀을 쟁여 넣는 사이레지 저장고야.」

「아하 그렇군요. 목장을 그림이나 실제나 모두 저런 둥근 탑이 있어 무엇인가 하고 생각했으니 소의 양식 창고군요.」

「우리들은 넓은 초지에서 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뽕죽 지붕이 있는 사이로가 있는 그런 목가적 정취가 담긴 풍경 사진이나 목장을 보고 참 멋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사람과 소, 그리고 풀과 소, 사람과 풀 사이의 끊임없는 순환과 조화가 이루어진 끝에 우리가 우유를 먹게 되고 여러가지 우유제품도 만들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할꺼요. 또 젖소라고 풀만 먹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양의 우유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사료의 수입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할꺼요.」

짧은 가을해가 기울 무렵 이 행복한 일가족은 우유가 어디서 어떻게 생겨 나는지를 다시 한번 되씹어 보며 아쉬운듯 목장을 떠났다.

